덕치면 의용소방대 · 생활개선회 침수주택 복구 지원

임실군 덕치면 남·여 의용소방대, 생활개선회 등 30여명은 이번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 방류로 발생한 침수주택 피해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침수된 주택에 홀로 사는 이 모 어르신은 마을 이장 주택에 긴급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방까지 물이 잠겨 토사가 집안에 가득한 상태여서 혼자 정리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회원들은 침수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가구, 침구류 및 방안 가득한 토사를 제거하고 집 안 곳곳을 청소하며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임실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랑의 이동세탁차량을 지원하여 이불 및 옷가지 등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주는 등 피해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윤영숙 의용소방대장 및 생활개선회 김양자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임실군자원봉사센터, 저소득층 김치 나눔 행사

임실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소병종)는 지난 11일 센터 광장에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눔터 운영 프로그램'으로 김치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알렸다.

이날 행사는 이희운 농협임실군지부장, 박길수 애향운동본부장 외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100세대에 여름 배추김치 500kg을 담아 전달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로당 공동취사 문제 및 긴 장마와 호우 등으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상황에 김치나눔은 소외된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됐다.

소병종 센터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장기화되는 장마와 코로나 19에 지친 어르신들이 입맛을 찾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임실군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면마스크 만들어 주기와 공공시설 방역활동, 학생 대상으로 손소독제 나눔 등 지역사회 봉사의 중추적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류창옥(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씨 장모상= 빈소: 전주 모악 장례문화원 201호실, 발인: 15일 연락처: 063-221-4400

'치매극복봉사단' 본격 활동 돌입

무주군 치매안심센터, 11명의 봉사 단원 발대식 · 위촉장 수여

무주군 지역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원군의 역할을 하게 될 치매극복봉사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3일 무주군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부정적 인식개선 활동을 함께할 '치매극복봉사단이 지난 10일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돌입했다.

봉사단원,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발대식에서 조수현 무주보건의료원장이 봉사단원으로 위촉된 11명의 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무주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극복봉사 단원들에게 치매극복봉사단의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를 안내하고 치매극복을 위한 한걸음, '우리 모두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치매 관련된 홍보 및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치매극복봉사단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

매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뿐 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보조 등 지역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다양한 치매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기적으로 단원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활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치매극복봉사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팀(063-320-8607)에서 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안천면-맑은물사업소, 폭우피해 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진안군 안천면(면장 전종일)과 맑은물사업소는 13일 폭우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안천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도로파손, 하천의 석축붕괴 및 토사유출, 시설하우스 붕괴 등 150여건에 달하는 공공 및 사유 시설물 피해를 입었다. 또한, 안천면 관내 농가의 50%에 육박하는 180여 농가가 현재까지 농작물 또는 농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농가의 피해가 컸다,

특히 침수 등의 피해가 심한 수박은 최근 수박값 폭락과 맞물려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인삼 역시 4년근 이상의 수확기 인삼이 땅속에서 빠르게 썩어가는 현상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일손돕기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이에 진안군 안천면과 맑은물사업소 직원 20여명은 지난 13일 중리마을의 인삼농가를 찾아 진흙밭이 된 1,746㎡의 인삼밭에서 4년근 인삼캐기 일손돕기에 나섰다.

전종일 안천면장은 "수마가 할퀴고 간 농경지를 돌아보며 면민들의 애환을 느꼈다, 농촌 일손봉사를 순차적으로 지원해 관내 농가들이 힘든 시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실패 넘어 성공 향한 금연캠프' 실시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는 13~14일 이틀 동안 진안고원치유숲에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패넘어 성공향한 금연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금연캠프는 당초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비합숙으로 전환하여 이번에 실시하게 됐다.

특히 전북금연지원센터 전문강사들을 초빙해 건강관리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고, 흡연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진안고원치유숲 트레킹 등 자연속에서 치유하며 족욕 및 곱돌명상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폐CT, 폐기능검사, 경동맥초음파, 기초건강검진 등 개인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대해 진안군의료원 조백환 원장이 개인별로 상담까지 진행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진안군보건소는 앞으로도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예수병원 특허 경진대회 성료

예수병원 기독의학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예수병원 특허경진대회가 지난 12일 설대위기념관 7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의 특허 아이디어 발표와 심사위원과의 질의 응답에 이어 최종 심사 등의 순서로 열띤 경연이 진행했다. 심사는 기독의학연구원 운영위원회 류제영, 선인오, 김경진, 김지혜, 임지현 위원과 자문 및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특허법인 웰의 윤여표 대표 변리사가 맡았다.

최종심사 결과 3등은 작업치료실 빈영진의 '후두상승강화 텐션바' 외 3건, 2등은 재활의학과 이광재 과장의 '베벨방향 인디케이터 주사침' 외 3건이 선정됐다. 영예의 1등 수상작에는 신경외과 김효준 과장의 '뇌실외배액 챔버의 환자 위치 연동형 거치장치'가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13일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용소방대 전문강사가 에덴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초중생을 대상으로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손깍지'라는 주제로 소방교육이 진행됐다.

전문의용소방대원이란 응급처치 이론과 실무 등 현장응급구조 교육을 수료하고 심폐소생술 하고 있다.

양미옥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앞으로도 전문의용소방대 서비스를 통해 지역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선관위, 전일고 등에 선거장비 지원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관내 3개 고등학교 학생 1,95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회장 등을 선출하는 2020학년도 학생회임원선거에 공직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발급기 및 선거 장비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였던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학교 측의 투표용지 인쇄에 따른 수고를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거 장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교원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남원경찰서, 야간시간대 우범지역 탄력순찰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는 관내 우범지역인 물방개 워터파크 및 비상벨설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야간시간 탄력순찰을 실시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 우려지역인 물방개 워터파크 및 효산콘도 등 관내 우범지역과 여성안심귀갓길 4개소에서 가시적 순찰을 실시했다.

또한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에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린 지역 등을 집중순찰하며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동권 지구대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순찰을 병행 사전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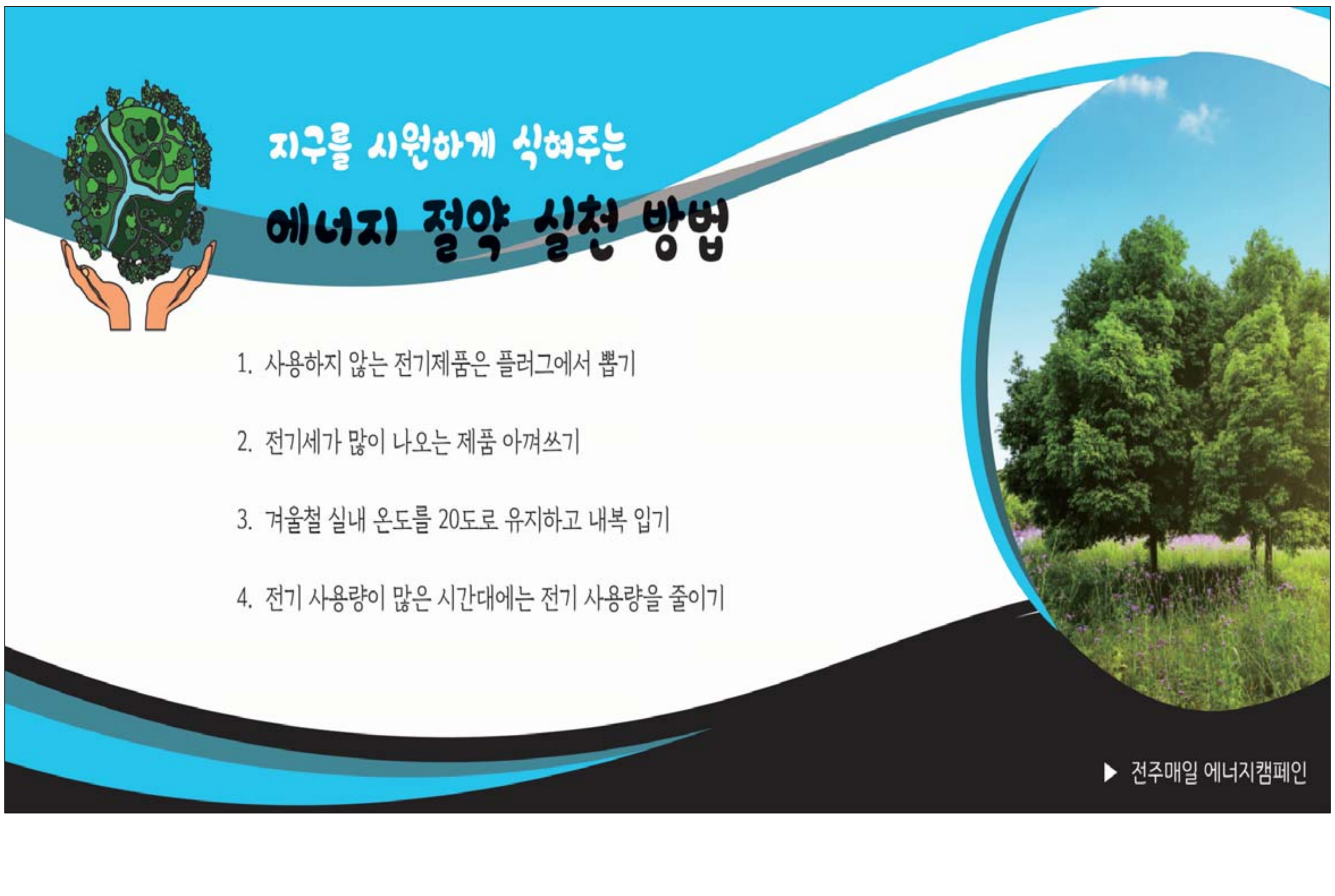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체육회-천마부대, 수해지역 응급복구 동참

최근에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남원지역에 피해복구를 위한 외부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남원시체육회는 양심묵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지면 상귀, 방촌 마을과 주천면 내송마을 수해지역을 찾아 피해복구에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특전사 천마부대도 지난 12일 금지면 하도마을과 용정마을에 대대장(중령 전효승) 등 1개 대대병력 176명을 투입해금 대민지원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섬진강 제방 120m가 붕괴되면서 침수된 마을 주택에 쌓인 흙더미, 무너진 주택의 잔해와 가구, 가정의 가재도구를 정리 등 주민의 일상을 정상화 하는데 집중했다.

/남원=김기두 기자